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취약계층의 계층별 분석

Analysis of the Vulnerable Class on Digital Divide

권선희 (Sun Hee Kwon)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¹⁾

〈 국문초록 〉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 문제인 디지털정보격차가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수준을 파악하고 정보의 접근성, 인구사회학적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특성이 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보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계층별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취약계층의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활용능력, 컴퓨터·인터넷 역량, 삶의 만족도

1) sunnyk@daejin.ac.kr

1.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확대되어있다. 기존의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문화 및 정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공간의 창조까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발전 단계를 주장한 ‘정보사회론자’들에 의해 정보화의 진행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종전의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문조, 2020).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정에서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자원공유(Cloud),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유망산업이 부각되고 있다(안세환 등, 2022). 스마트폰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 모바일 환경이 중요시되는 스마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서형준, 2014).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장치 등 ICT의 급속한 확산은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재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최계영, 2017).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비대면이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한 문제의식도 커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인터넷의 접속환경이나 스마트폰 및 컴퓨터(혹은 노트북) 보유 등이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로 인식되었다면 발생 이후에는 정보의 활용능력이나 디지털에 과의존하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대면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이 어

려울 수 있다. 일 예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의 접근에 취약한 계층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간단한 생필품의 구매에서부터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보 확인까지 빠른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참여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정보화 시대라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전의 사회에 비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계층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급속한 국가 사회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발전의 결과로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충식, 2012). 이처럼 정보 소유 여부 및 보유한 정보의 질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 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더욱 확장되고, 심지어 세대 간에 세습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이명진, 박기태, 2009).

이처럼 디지털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를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정보 빈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한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산업의 정보화 및 경제의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직업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보 취약계층은 경제적 여건, 교육, 그리고 직업생활 등 정형화된 사회적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정보 빈자의 생활이 강화되고 다시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악

순환을 문제를 제기하였다(최두진 등, 2006). 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은 지금,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 간 사회경제적 성취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변혁은 주로 지식컨텐츠 포획, 추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온 기존 지식경영 실천의 확장이기 때문이다(진성현, 박동준, 2017).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정보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교육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노령층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의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기기 보유율을 비교해보면 일반 국민의 보유율은 93.5%로 4대 취약계층의 평균인 83.3%(장애인 83.6%, 고령층 81.5%, 저소득층 91.1%, 농어민 83.4%)와 비교하여 1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모바일기기의 보유율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문제는 정보의 활용 능력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꾸준히 조사해 왔으며, 그 결과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평균값이 2014년 50.1%에서 2021년에는 75.4%로 25.3%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장애인 층은 60.2%에서 81.7%로, 저소득층은 72.5%에서 95.4%로, 농어민층은 51.4%에서 78.1%, 고령층은 42.4%에서 69.1%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층과 고령층에서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장애인층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이 상대적으로 작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2020년 공개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정보 역량 및 활용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보고서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층별 조사결과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각 계층간 정보화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계층별 특성을 파악하고 계층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포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의 접근성, 사회학적 특성, 신체 및 정신 건강특성이 여전히 정보격차의 요인인지를 파악하여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해 이론적인 디지털 정보격차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높인다. 둘째, 정보 역량과 활용능력에 대한 계층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일생 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 정보화 수준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2. 기존문헌 연구

2.1. 디지털 정보격차의 정의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면 인터넷 및 정보 미디어 강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대통령 정책 보좌기구인 NTIA(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1995년 7월에 발표한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차성민, 2007).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정보격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각적인 현상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정보격차의 문제를 한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국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서형준, 명승환, 2016).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가 초창기에는 성별,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의 접근에서 나타났다면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이용에 대한 활용이나 정보의 문해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는 인터넷 경제와 정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인이나 사회계층 간에 정보격차를 강조하며, 주로 정보통신 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질적 변화가 사회계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구자순, 2007).

국내외 문헌에서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이 주로 기기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이후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활용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서 정보 불평등(digital inequality)으로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DiMaggio et al., 2004). 김문조(2002)는 정보격차를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지닌 자와 지니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의 전형적인 예로 설명하면서 이를 정보화 부작용의 복합적 특성을 내포하는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Castells(2000)는 정보의 네트워크로부터 소외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 즉

경제, 사회, 문화자본에서의 자본이 한 사외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정보격차의 사회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민영(2011)은 인터넷이용과 정보격차의 연구에서 정보격차의 단계가 3단계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먼저 도입기에는 정보접근의 격차가 나타나는 시기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도약기에는 정보의 이용에 대한 격차가 나타나면서 이용자와 이용자가 아닌 사람 간의 차이로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포화기는 정보의 활용수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때는 도약기에 이은 2차 정보격차가 나타나는 시기로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 활용의 접근 정도에 따라 사회문화적 격차로 확대된다면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

2.2.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흐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보 접근의 차이부터 정보 활용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진흥정보원의 설문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연도별도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분석이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하는 방식 등이다. 또한 시계열 분석이더라도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로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의의를 서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집단별로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연구로 박영미(2004)는 각 시, 도의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접속률

을 이용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통신부의 정보지원정책의 형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경우 형평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서진완(2002)은 정보화의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화 수준을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추진된 주민정보 이용실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정보격차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 김부철(2006)은 경상북도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참여 의지 등을 자극하여 정보화 확산의 촉매로 활용하고 정보격차 해소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김은정(2007)은 세대통합이라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보 활용이 낮은 청소년 및 노년층을 정보 접근성 수준이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세대 간의 학습 및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참여집단 간의 자신감 증진, 세대 간의 부정적 인식 축소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노년층은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정인관, 2021).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에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 학력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김봉섭, 김정미, 2009; 박소영, 김지원, 2019; 황현정, 황용석, 2017),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오지안, 유재원, 2018; 전대성, 2015).

김봉섭, 김정미(2009)는 경제력과 학력이 노년층의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저소득층, 저학력층을 세분화하여 심도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지안, 유재원(2018)은 노년층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 시 준비 자세로 보고 정보 격차와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정보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이며 노인복지의 정책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시니어의 경우 미디어 활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노화현상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미디어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현용 등(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전대성(2015)은 노인들의 정보화 역량유무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보화 역량을 보유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서 정보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예나(2015)는 저소득층의 정보격차에 따른 참여 활동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IT활용 능력이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은정 등(2008)은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간의 정보격차 지수를 제시하고 정보 지원을 받아야 할 우선정책지원집단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진상기(2013)는 정보격차지수의 추세분석과 패널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계층별 특성에 따라 정보격차가 축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보 활용의 양적활용과 질적활용에 대한 가중치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신상완, 김정석(2002)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이용률을 이용하여 정보격차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특정 계층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각 계층별로 구분한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격차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면 취약계층 간에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집단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각 계층별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설정한 뒤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표본으로 추출한 후, 구조화된 설문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2020년 8월 설문 작성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취약계층 대상은 8,900명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층은 각각 2,200명으로 총 8,900명으로 본 연구의 변수에 해당되는 결측값을 제외한 표본의 수는 7,24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자료

를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활용 가능한 2020년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자료로 분석이후 일반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해당된다. 그리고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 활용 및 역량 수준뿐만 아니라 정보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인터넷을 상시로 접속 가능한가 등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 = \text{디지털접근수준}(0.2) + \text{디지털역량수준}(0.4) + \text{디지털활용수준}(0.4)$$

이때, 디지털접근수준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의 합으로 구성되고, 디지털역량수준은 PC 이용능력(0.5)과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0.5)의 합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활용수준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0.4)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계산된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20).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매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향상된 정보화 수준으로 정보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기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결과로 디지털 역량 및 활용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런 배경 하

에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 활용에 대한 계층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대비 각 계층별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정보격차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격차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접근수준의 격차와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그리고 양적사용 수준과 질적사용 수준의 활용격차를 합한 것으로 일반국민과 비교하기 위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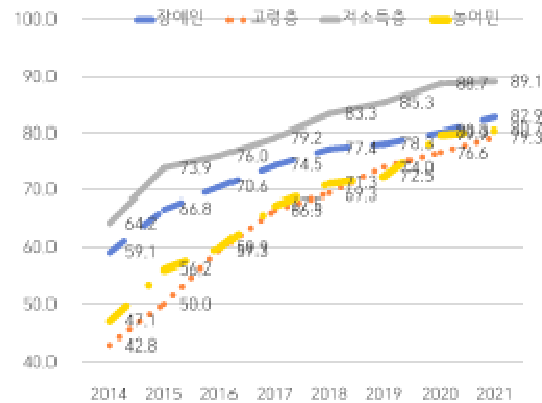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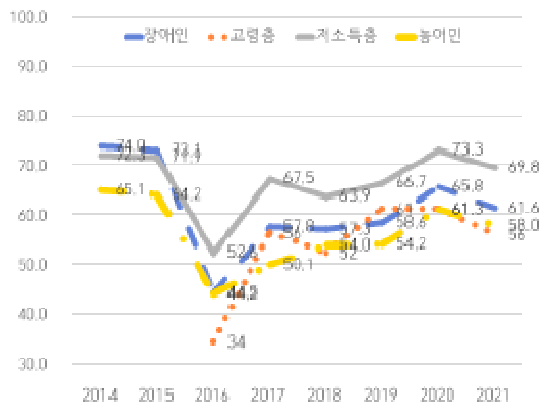
본 통계자료에는 계층별 성별,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취약계층의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계층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보유율은 2021년기준 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층(69.8%)과 고령층(56.1%), 농어민층(58.0%)을 비교하면 약 10%p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과 농어민층의 컴퓨터 보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컴퓨터 보유율의 계층별 격차는 2014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컴퓨터를 대신할만한 다른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인과 취약계층의 평균을 비교하면 2014년에는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이 83.6%, 취약계층 평균이 48.4%였지만 2021년에는 일반국민은 96.0%, 취약계층 평균은 8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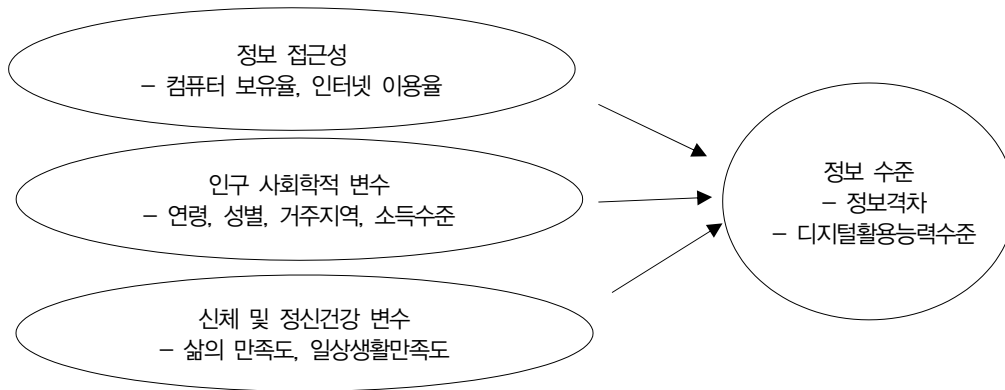
3.2. 연구 모형 및 변수

본 연구는 계층별 정보역량 및 활용능력을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정보의 접근성 변수인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이 계층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수준이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과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인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일상생활의 만족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그림 1> 계층별 컴퓨터 보유율(좌) 및 인터넷 이용률(우)



〈그림 2〉 연구 모형

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여가 및 문화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과 같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의 범주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1)부터 매우 만족한다(4)는 답변까지 리커트(Likert)척도의 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김수경 등(2020)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였으며 <그림 2>와 같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 수준인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보 접근성, 인구 사회학적 변수,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들을 토대로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계층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림 2>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보 수준을 종속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과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인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보 접근성에 따른 계층별 정보격차 및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계층별 정보격차 및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어떠한가?
- 셋째, 신체 및 정신건강 변수에 따른 계층별 정보격차 및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정보 수준은 디지털활용능력수준과 정보격차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들과 정보 차이 존재 유무를 비롯하여 디지털활용능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종속변수를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때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문항으로 이에 대한 답은 ① 각종 생활정보 취득 및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수준 이미지, ② 동영상을 원하는 대로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수준, ③ 수준 높은 문서작성이나 자료관리가 가능한 수준, ④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제작/가공 할 수 있는 수준, ⑤ 취업, 온라인 창업 및 사업운영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이때 측정된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격차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격차지수의 계층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이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계층간 분석을 한 연구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3,947명으로 전체의 54.5%였고, 여자는 3,295명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60-69세가 2,764명(38.16%), 50-59세는 2,054명(28.36%), 30-49세는 1,040명(14.4%), 10-29세는 791명(10.9%), 70세이상은 593명(8.18%)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199만원의 항목을 선택한 사람이 2,07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99만원을 선택한 사람은 68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2,001명으로 27.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대전·충청(18%), 광주·호남(17%), 부산·울산·경남(16.4%), 대구·경북(11.8%), 강원도(5.2%), 제주도(4.0%)순으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취약계층의 계층별 분석을 위해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정보격차의 경우 각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정보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는 장애인층, 농어민층,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정보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계층은 고령층으로 이들은 컴퓨터보유율과 인터넷이용율도 계층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

<표 1>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연도)	대상	변수	주요결과
박영미(2004)	취약계층	- 컴퓨터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 지역 경제력 종합지수	- 정보의 정보화 진전의 노력으로 저소득계층 보다는 중상위 계층의 혜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형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 기회평등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김동원, 김부철(2006)	농어민계층	정보화 마을 전후 정보격차 비교	- 정보화 시범마을의 성공 요인 : 커뮤니티 지원형 전자상거래 전략
김봉섭, 김정미(2009)	노년층	- 심리적 요인 (컴퓨터/인터넷 자기효능감, 유희성, 친근감) -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경제력, 학력)	- 연령에 의해 결정된 정보화 취약성이 경제력이나 학력 등의 변인에 따라 이중적 정보격차가 나타남
오지안, 유재원(2018)	노년층	- 기술적 이용능력, - 정보생산 및 공유, - 사회관계, 사회참여 -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 자존감	- 노인들의 리터러시가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 및 자존감 등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최예나(2015)	저소득층	- 운영기술, 정보기술, 전략적기술 - 개인특성 -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 IT활용능력차이가 저소득층의 인터넷기반(PC, 스마트폰 활용) 경제참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중요
진상기(2013)	취약계층	- 정보격차	-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지수 변화를 바탕으로 집단별 정보격차 현황을 분석 - 현행 정보격차지수의 가중치 값의 재조정의 필요성 강조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구분		일상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디지털활용 능력수준	정보격차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농어민	평균	2.79	2.79	1.09	21.9	58.0	80.7
	표준편차	.72	.66	.42	-	-	-
	첨도	-.46	.13	.38	-	-	-
	왜도	-.02	-.26	.78	-	-	-
장애인	평균	2.55	2.34	1.14	18.3	61.6	82.9
	표준편차	.77	.80	.54	-	-	-
	첨도	-.38	-.57	.34	-	-	-
	왜도	-.01	-.04	4.67	-	-	-
저소득	평균	2.58	2.36	1.22	4.6	69.8	89.1
	표준편차	.82	.87	.70	-	-	-
	첨도	-.52	-.67	.345	-	-	-
	왜도	-.06	.14	3.74	-	-	-
고령층	평균	2.67	2.69	1.11	30.9	56.1	79.3
	표준편차	.76	.73	.48	-	-	-
	첨도	-.48	-.14	.41	-	-	-
	왜도	.02	-.23	.35	-	-	-

약계층 중에서는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활용능력 수준의 평균값을 보면 저소득층이 1.22, 장애인이 1.14, 고령층이 1.11, 농어민이 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계층 중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농어민 2.79점, 장애인 2.55점, 저소득 2.58점, 고령층 2.6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농어민 2.79점, 장애인 2.34점, 저소득 2.36점, 고령층 2.69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약간 낮았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절대값 1이하로 첨도는 절대값 7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4.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컴퓨터보유율, 인터넷이용률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정보격차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 컴퓨터보유율, 인터넷이용률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정보격차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은 정보격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보유율, 인터넷이용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는 정보격차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정보격차가 클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4.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종속변수를 정보격차로 설정한 분석결과이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1									
2	.416**	1								
3	.521**	.041**	1							
4	-.063**	-.175**	-.080**	1						
5	.077**	.192**	.086**	-.678**	1					
6	.074**	.186**	.086**	-.678**	.699**	1				
7	.045*	.055*	-.125**	-.528**	-.538**	-.536**	1			
8	-0.017	0.016	-.021	-.011	-.003	.003	.008	1		
9	.149**	.180**	.013	-.623**	-.614**	-.612**	.142**	-.017	1	
10	.034	.044	-.084	-.021	-.091	-.088	.050	-.006	-.056	1

** $p < .01$, * $p < .05$

Note : 1: 일상생활만족도, 2: 삶의 만족도, 3: 디지털활용능력수준, 4: 정보격차, 5: 컴퓨터보유율, 6: 인터넷이용률, 7: 연령, 8: 성별, 9: 가구월평균소득, 10: 거주지역

〈표 4〉 회귀 분석 결과 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p	β	t	p	β	t	p
(상수)			.000			.000			.000
컴퓨터보유율	-.806	-2.89	.000	-.862	-4.335	.000	-.908	-4.91	.000
인터넷이용율	-.172	-2.75	.006	-.099	-3.64	.000	-.054	-2.89	.000
연령				.010	3.56	.000	.010	3.46	.001
성별				.008	3.40	.000	.008	3.29	.001
가구월평균소득				-.029	-9.34	.000	-.031	-9.98	.000
거주지역				.065	1.27	.105	.065	0.48	.170
삶의 만족도							.082	3.15	.002
일상생활 만족도							.091	3.62	.000
R^2	.35			.32			.32		

종속변수: 정보격차

다. 모형 1에서는 정보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컴퓨터보유율($\beta = .806, p > .000$)과 인터넷이용율($\beta = .172, p > .006$)이 정보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보유율이 높을수록, 인터넷이용율이 높을수록 정보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beta = -.010, p > .000$), 여성일수록($\beta = -.008, p > .000$), 가구의

월평균소득($\beta = -.029, p > .000$)이 낮을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지역($\beta = .065, p > .105$)은 정보격차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요인을 추가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종속변수를 디지털활용능력수준으로 설

<표 5> 회귀 분석 결과 2

변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β	t	p	β	t	p	β	t	p
(상수)			.765			.611			.945
컴퓨터보유율	.071	2.236	.000	.340	4.14	.000	.179	3.586	.000
인터넷이용율	.015	3.051	.000	.372	3.26	.000	.219	2.715	.000
연령				-1.07	-7.39	.000	-1.11	-7.72	.000
성별				-.020	-1.69	.090	-.20	-1.69	.095
가구월평균소득				.017	1.09	.275	.010	.634	.526
거주지역				-.76	-.390	.400	-.078	-.572	.100
삶의 만족도							.058	4.39	.000
일상생활 만족도							.061	4.36	.000
R^2	.22			.17			.20		

종속변수: 디지털활용능력수준

정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4는 컴퓨터보유율($\beta = .071, p > .000$)과 인터넷이용율($\beta = .015, p > .000$)이 디지털활용능력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beta = -1.07, p > .000$), 남성일수록($\beta = -.020, p > .090$)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과 거주지역은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요인을 추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간의 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 4>의 모형3과 비교하여 계수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어 삶의 만족도나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디지털활용능력수준보다는 정보격차와의 정의 관계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5. 계층간 정보수준 비교

<표 6>은 정보수준에서 계층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비교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디지털활용능력수준,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 및 정신건강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보격차와 컴퓨터보유율, 인터넷이용률은 각 계층에 동일한 값이 부여되어 실증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농어민층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층의 경우에도 농어민층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및 정신건강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디지털활용능력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디지털활용능력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계층과 다르게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계층별 변수들의 공통적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이나 정보기기에 대

〈표 6〉 회귀 분석 결과 3

변수	농어민			장애인층			저소득층			고령층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상수)			.000			.000			.000			.000
연령	-.042	-1.68	.008	-.007	-2.81	.005	-.136	-5.64	.000	-.059	-2.31	.021
성별	-.017	-1.95	.031	-.032	-1.84	.050	.007	.307	.759	-.056	-2.36	.019
가구월평균소득	.024	.919	.358	.016	.614	.139	.019	1.27	.149	.137	2.01	.014
거주지역	.149	.223	.141	-.018	-.516	.207	.038	.707	.195	-0.92	-.827	.154
삶의 만족도	.062	2.52	.012	.027	.997	.019	.099	3.94	.000	.023	.912	.002
일상생활 만족도	.043	1.94	.021	.060	.224	.023	.570	2.22	.006	.037	1.45	.001
R^2	.29			.28			.24			.31		

종속변수: 디지털활용능력수준

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의 값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각 계층별 계수값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령층, 농어민층, 장애인층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에서의 연령별 디지털활용능력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정인관(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집단 간, 집단내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로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회활동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의 관심, 가치관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연관성을 보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양정미, 장현미, 2014; 김희경 등, 2010; Moom et al., 2017). 세 번째로 각 계층의 경제수준을 의미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에서도 정보소외계층을 본 연구와 같이 4대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보활용능력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볼 때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요약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차이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는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에서 벗어나 정보의 접근, 활용을 통한 사회전반적인 분야로의 격차 확대를 비롯하여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디지털 정보격차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실증 분석한 결과, 정보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이용률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각 계층의 정보통신 시설 보급과 이용이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김문조, 김종길(200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격차의 초기단계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은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정보격차와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석준(2016)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디지털 활용격차가 적다고 서술하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격차와 활용격차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구자순(2000)은 고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인터넷 이용률, 이용기간, 인터넷이용인식 및 태도, 역량에서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이수(2018)는 디지털 성별 격차(Digital Gender Divide)를 언급하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권익이 향상된 바 있으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정보격차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정보격차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향수, 이성훈(2018)은 소득격차가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정보격차, 디지털활용능력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상생활 정보의 취득부터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문서작업이나 자료의 저장 및 가공 등의 디지털 활용능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희(2019)는 장애인의 경우 정보 활용 여부가 그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방

안 마련을 고민해야한다고 하였다. 전대성(2015)도 정보화 역량을 보유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명하면서 정보화 역량 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취약계층에서 고령층일수록 그리고 여성의 경우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층에서만 가구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령층의 경우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정보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연구시사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계층별 디지털 정보격차 및 디지털활용능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층별 비교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에서 디지털활용능력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계층간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차성민(2007)은 연구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축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 정보교육의 활성화와 응용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디지털 정보나 기기의 접근에 한계를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보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예나(2015)와 같이 IT활용능력은 경제활동의 참여와의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인터넷,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컴퓨터의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층에서는 컴퓨터의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데다가 디지털활용능력수준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계층에 대한 기기의 보급 및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디지털활용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해 보인다.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연구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전 연도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다보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격차 노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정대적인 값의 향상을 의미하고 있어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시계열 흐름에 따른 각 계층별 차이를 분석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IT활용능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윤정섭, 손은정(2021)은 코로나 19로 인한 디지털기술의 확산은 디지털 기술 사용자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차이를 체감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법안 마련과 같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기술 혁신을 예측하여 격차를 해소할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한 취약계층의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강이수 (2018).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여성노동의 쟁점과 현실. **페미니즘연구**, 18(1), 143-179.
2. 구자순 (2007). 고령층여성의 디지털격차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11), 1-24.
3. 김동원, 김부철 (2006).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경상북도 두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30.
4. 김문조 (2020). AI LEODML 디지털 격차. **지역사회학**, 21(1), 59-88.
5. 김문조, 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 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6.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한국노년학**, 30(2), 279-292.
7.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접근·활용·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1), 150-187.
8. 박소영, 김지원 (2019). 노년층 세대 내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 2010-2018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자료분석학회지**, 21(5), 2407-2418.
9. 박영미 (2004). 정보복지를 위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분석-정보가치배분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2), 119-143.
10. 서진완 (2002). 정부기관 정보화수준평가의 발전적 방안 모색. **정보화정책**, 9(3), 18-37.
11. 서형준, 명승환 (2016).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2), 151-187.
12. 안세환, 고강욱, 김영민 (2022). 디지털전환: D,N,A(Data, Network, AI) 키워드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 **지식경영연구**, 23(3), 129-152.
13. 양정미, 장현미 (2014).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능력이 상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2), 160-190.
14. 오지안, 유재원 (2018).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319-344.
15. 윤정섭, 손은정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미래연구포커스**, 50(3), 7-12.
16. 이명진, 박기태 (2009).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 16(3), 3-17.
17. 이향수, 이성훈 (2018). 농어민의 정보격차와 소득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 13-20.
18. 장석준 (2016). 노년층 디지털 격차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1(2), 149-170.
19. 장현용, 박상철, 고준 (2020). 온라인 교육 수용 환경에서 시니어들의 디지털 행동 이해: 근거이론 적용. **지식경영연구**, 21(2), 77-100.
20. 전대성 (2015). 노년층의 정보화 역량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389-409.
21. 정인관 (2021).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201-2019분석. **인문사회21**, 12(2), 1875-1886.
22. 정충식 (2012).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3. 진상기 (2013). 한국 정보격차의 시계열 변화 분석: 정보격차 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3), 147-174.
24. 진성현, 박동준 (2017). 21세기 디지털 조직 전략실천에 대한 생태론적 고찰. **지식경영연구**, 18(3), 201-230.
25. 차성민 (2007).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정보학보**, 11(2), 413-432.
26. 최계영 (2017). **4차 산업혁명과 ICT(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최두진, 고정현, 김은정, 장주병, 박세은 (2006). **정보격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8. 최예나 (2015). 정보격차가 인터넷기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235-257.
29.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3), 53-68.

[국외 문헌]

30. Castells, M. (2000).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Oxford: Blackwell.
31. Correa, T., Hinsley, A. W., & De-Zuniga, H. G. (2010). Who interacts on the Web?: The intersection of users' personality and social media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2), 247-253.

32. Di Maggio, P., Hargittai, E., Celeste, C., & Shafer, S. (2004). Digital inequality: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In K. Neckerman (Ed.), *Social inequality* (pp. 355–400). NY: Russell Sage Foundation.
33. Moon, Y., Hong, A., & Hwang,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user's personality and accessibility on digital litera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18(2), 33–64.

● 저 자 소 개 ●



권 선희 (Sunhee Kwon)

현재 대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국제통상연구, 무역연구, 유라시아연구, 국제지역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환율변동, 기업 투자, 소득불평등 등이다.

〈 Abstract 〉

Analysis of the Vulnerable Class on Digital Divide

Sun Hee Kwon*

As the untact culture spreads, the digital divide, which is a problem of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for the vulnerable, can appear as information inequalit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social and cultural field. This study identified the digital divide level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n the information level. As a result, the higher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he smaller the digital divide and the greater the digital utilization,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devices and increase the ability to utilize them. In addition, the higher the age, the more women than men, and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greater the digital divide,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digital capabilities through detailed class-specific programs for the vulnerabl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divide and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vulnerable. The expansion of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ies by changing the paradigm to a digital inclusion policy should be continuously operated.

Key words: Digital divide, Digital utilization capability, Computer and Internet competence, Life satisfaction

* Department of Global Economics, Daejin University